고난 극복 리더십

김형태 박사(한남대학교 14-15대 총장)

사자성어에 고진감래(苦盡甘來)란 말이 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이다. 고생 끝에 낙(樂)이란 뜻이기도 하다. 고난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이다. 그러나 그 고난에 대한 대응과 각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연(鳶)을 날릴 때 바람이 불면 어떤 연은 그 바람을 타고 더욱 솟아오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연은 그 바람 때문에 아래로 내리꽂는 연도 있다. 바람탓이 아니다. 그 바람을 어떤 각도에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솟기도 하고 내리꽂기도 한다. 인생살이에서 고난도 이와 비슷하다. 이탈리아 속담에 “난파선에게는 어떠한 바람도 역풍(逆風)이다.”란 게 있다. “세찬 바람이 불어야 굳센 풀을 알 수 있다.”(疾風知勁草)는 말도 있다. 그래서 일이 순조롭지 않을 때가 성장할 기회이기도 하다. 채근담에도 “고락을 나누며 단련하고 서로 연마한 끝에 얻은 복은 오래간다.”고 했다. 옛 성인들도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이겨내고 예(禮)를 따라가라고 권했다. 顏淵이 인(仁)에 대하여 묻자 공자의 대답은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인(仁)을 이룰 수 있다. 하루라도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인(仁)을 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克己復禮) 이렇게 행동의 기준을 주었다.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논어/안연편)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위험을 잘 이겨내 불세출의 자가 된 두 사람의 자기 고백적 글을 읽어보자. ①“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는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2백만도 되지 않았다. 배움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해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났다. 적은 밖이 아니라 내(마음)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모두 없애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이는 징기스칸의 고백 시다. 그리하여 징기스칸은 북쪽 시베리아에서 남쪽 베트남까지 동쪽 고려에서 서쪽 헝가리까지 779만 평방km를 지배했다. 이는 348만 평방km를 지배한 알렉산더와 115만 평방km를 지배한 나폴레옹, 219만 평방km를 지배한 히틀러를 합한 것보다도 넓은 땅이었다. 100~200만 인구로 1억~2억 인구를 정복하고 다스렸다. 이순신 장군의 경우도 비슷하다. ②집 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서른둘(32)의 늦은 나이에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 상관들과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당했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말라. 나는 평생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마흔일곱(47세)에 제독이 되었다. 조직의 자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스물세 번(23회) 이겼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 갖지 말라. 나는 끊임없는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의 적을 막았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가족을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 나는 스무 살의 아들을 적의 칼날에 잃었고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갔다.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